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내 양돈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 돼지콜레라를 근절하는 일입니다. 사무실마다 돼지콜레라 박멸 포스터가 붙어 있고 축산관계 신문·잡지에는 거의 빠짐없이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자는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를 이 땅에서 빨리 없애야겠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언제까지 구호만 가지고는 돼지콜레라를 없앨 수 없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시·도, 시·군 등 방역 관련 행정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항체검사결과 양성률이 평균 90%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돼지콜레라 박멸에 성공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관(官) 주도만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뜻에서 양돈업계뿐 아니라 22개의 관련단체가 모여서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한 것이 4월15일, 이제 석 달 반이 지났습니다만 기금조성 문제로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당초의 의욕적이었던 사업계획을 실정에 맞게 3분의 1정도로 축소하여 각 도와 양돈농가 40호 이상 되는 119개 시·군에 돼지콜레라 전문요원 한사람의



윤희진 집행위원장
(사)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인건비와 약간의 방역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 18억8천만원입니다. 당연히 양돈인들 스스로가 경비를 조달하여야 하겠으나 자조금제도가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월 일본양돈협회 전무가 우리나라에 다녀가면서 한 얘기에 따르면, 일본에서 3개현이 예방접종 중지예 반대하고 있지만 내년 10월 이전까지 예정대로 청정화 프로그램이 틀림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의과학검역원의 양돈농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까지 15.3%의 농가가 전혀 접종을 하지 않았고 접종을 하더라도 1회만 접종하는 농가가 2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될 경우에 한국육류수출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98년 대비), 돼지사육두수는 244만두가 줄고, 양돈사료 생산량은 연간 160만톤, 금액으로는 약 4,600억원이 줄어들며, 지육 kg당 가격은 생산비도 안되는 2,200원선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서 몇년 후 재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지난 '97년 대만의 구제역 발생 피해에서 보듯이 수입국으로 전략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곧 쇠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되고 닭고기 시장마저 잠식당하는 판국에 그나마 양돈생산기반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의 장래는 너무나 암담하게 됩니다.

돼지콜레라 조기박멸을 위한 양돈업계의

의욕적인 기금모금 추진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잘 압니다만, 사안이 워낙 절박했던 때문으로 사료업계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박멸에는 관(官)과 민(民)이 따로 움직여서도 안되지만, 양돈협회와 축협조합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선 지역축협과 중앙회 그리고 전국 9개 양돈축협조합장님들께서도 각종 중요한 현안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일 만큼은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도 여기 나설 주제가 아닌 줄 압니다만,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남이 해주길 바라고,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앞장서기를 망설이기에 너무나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에서 또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일본에도 즉시 발생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전국의 양돈인과 관련업계 여러분!

별써부터 포기하고 말거나 정부대책만 믿고 기다리기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8월말까지 1년 1개월 남은 동안 또다시 돼지콜레라 발생이 있어서도 안되고, 100% 예방접종을 기필코 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는 곧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시작하고 대책본부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양돈**